

바이든, 생명공학·바이오분야 ‘자국보호주의’ 선언

韓 바이오기업 CMO ‘비상’... “선제적 전략수립 중요해져”

(위탁생산)

원료·생산 제한시 타격 불보듯
일각선 과도한 우려 자제 지적
“협력 통해 반사이익 얻을 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결의가 필요하다”라며 “그래서 우리는 의료, 처방 약,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 IRA를 통과시켰다”라고 말했다. /AP·뉴스시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생명공학·바이오 분야에 자국 보호주의를 강화함에 따라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바이오 의약품의 원료와 제품 생산을 미국 내로 제한할 경우 위탁생산(CMO)과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에 주력하는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되는 탓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선제적인 전략수립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내 CMO 기업들 ‘초긴장’

백악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며 안심할 수 있는 미국 바이오 경제를 위한 바이오 기술 발전 및 바이오 제조 혁신에 관한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조치 등은 오는 14일 회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자동차,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 분야의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특히 중국을 견제한 행정명령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여전히 세계 생명공학 시장 점유율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침체에 빠진 상태다.

글로벌데이터는 올해 1분기 중 미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가 2021년 초 대비 46%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중국의 생명공학 산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올해 초, 중국 정부는 생명공학 5개년 계획을 공개하며 향후 이 분야의 가치를 22조 위안(3조2000

억 달러)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중국의 제약 산업이 10년 이내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국내 업체들도 긴장 상태로 향후 공개될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해 국내 의약품 수출 금액 기준 1조 원 가까이 모여있는 세계 2위 수출국이다. 이 때문에 자국 보호주의가 강화되면 국내 업체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국내 바이오 산업에 바이오시밀러 수출과 위탁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타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을 맡고 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백신을 위탁생산하고 있다.

◆중장기적 전략 수립 필요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행정명령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과 같은 맥락으로 바이오 분야 역시 자

국 생산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길 경우 국내 바이오시밀러와 CMO 기업들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발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과도한 우려는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CMO 업체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가 기존 고가 의약품의 대체하며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국내 생산을 우선한다고 해도 국민 건강과 질병을 담보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CMO 역시 다국적 기업들의 필요에 의한 전략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중국 의존도 낮추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방국에 지원책을 강화할 수도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한국이 백신 생산기지가 된 것처럼 선제적으로 협력 방안을 준비한다면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삼비에피스, 환경·에너지 ISO 인증

전사 차원 테스크포스 조직 운영
‘ISO 14001·ISO 50001’ 획득



삼성바이오에피스 고한승 사장(왼쪽)과 로이드인증권 이일형 대표가 지난 13일 송도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에서 열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ISO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환경 및 에너지 경영 관련 국제표준 인증(ISO 14001, ISO 50001)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1947년에 출범한 비영리단체이자 국제표준 인증 기구로, 공산품 생산 및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전문 심사 기관의 평가를 통해 국제적으로 표준화하여 공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중심의 지속가능 경영 체계 수립의 일환으로 ISO 인증 획득을 추진했으며, 여러 대외 인증 규격 중 환경 경영(ISO 14001) 및 에너지 경영(ISO 50001) 관련 인증을 획득했다.

ISO 14001 인증은 기업이 환경 경영 시스템을 통해 환경 측면을 체계적으로 식별, 평가, 관리 및 개선함으로써 환경 위험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며, ISO 50001은

기업이 에너지 경영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 활동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전략으로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국제 인증 규격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전사 차원의 테스크포스 조직 운영을 통해 올해 초부터 사무실 에너지 절감, 철저한 재고 관리 등 크고 작은 환경·에너지 분야의 개선 활동을 시행해 왔다.

/이세경 기자

동아에스티, ‘하이퍼 330’ 국내 독점 판매

(고주파 온열 장비)

동아에스티는 고주파 온열장비 전문 기업인 제이에스온과 고주파 온열장비 ‘하이퍼(Hiper) 330’의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입 제품들이 점유해 미개척 분야로 꼽히는 국내 고주파 온열장비 시장을 빠르게 선점할 계획이다.

제이에스온은 고주파 RF 특화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주파 의료 장비 전문

기업이다. 고주파 자극기는 10만Hz(헤르츠) 이상의 고주파 파동 에너지를 인체에 가하여 각종 근골격계 염증과 통증을 완화시키는 의료가기다.

‘Hiper 330’은 기존 고주파 자극기와 다르게 가변 주파수를 적용해 인체의 정상조직과 비정상조직 간 서로 다른 저항값에 따라 3~5MHz 범위에서 주파수가 자동으로 변조된다.

/이세경 기자

메드팩토, 백토서팁 병용 임상 데이터 공개

(항암신약 후보물질)

AACR 컨퍼런스서 포스터 발표
단독 요법 비해 월등한 효과 입증

메드팩토가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백토서팁 병용요법의 임상 중간데이터를 미국암연구학회(AACR) 췌장암 특별 컨퍼런스에서 포스터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13~16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AACR 췌장암 특별 컨퍼런스에서는 췌장암 치료와 관련한 다양한 임상 데이터가 공개됐다. 메드팩토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췌장암 대상 백토서팁-폴록스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 1b(연구자임상) 중간데이터를 공개했다.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췌장암 대상 백토서팁-폴록스 병용요법에 대한 임

상 1b에서 백토서팁 200mg를 1일 2회 투여한 13명 환자의 전체 생존기간 중 간값(mOS)은 9.3개월로 나타났다. 반면 췌스타빈 실패환자 대상 폴록스 2차 요법에서의 전체생존기간(OS)은 4.3개월에 그쳤다. 또 다른 폴록스 단독 요법 임상에서도 mOS 6.3개월로 나타나 백토서팁-폴록스 병용 요법의 월등한 효과가 입증됐다.

췌장암은 조밀한 세포외 기질이 암을 둘러싸고 있어 항암제의 접근이 어려워 항암치료 반응이 낮은 난치병으로, 국내에서 5년 생존율이 9%에 그친다. 발병해도 증상이 거의 없어 대부분의 환자가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되며 발견 후에도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10~15%에 불과하다.

/이세경 기자

이대서울병원 ‘어린이 환경건강 클리닉’ 운영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소아 문제 파악

이대서울병원이 지난 5일 소아청소년과 외래 앞에서 ‘어린이 환경건강 클리닉’을 열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미세먼지, 중금속 및 환경호르몬 등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아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진단하는 국내 첫 클리닉이다.

이화의료원은 올해 3월 이화여대, 서울의과학연구소(SCL)와 공동으로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하는 전 인류의 건강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을 조사하고 환경위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건강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린이 환경 건강 클리닉’과 ‘이화-SCL 환

경건강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진료는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이대서울병원 지하 1층 소아청소년과 외래에서 진행된다. 클리닉 진료 과정은 먼저 유해인자 노출 주변 환경 조사를 위해 소아의 집 주변, 실내환경, 생활습관, 영양 관련 질문 및 질병력 등에 대한 설문 작성한다. 다음으로 혈액, 소변 등의 검체를 채취해 각종 상에 맞는 환경성 물질 검사를 시행한다. 이후 각 중금속 및 환경호르몬 검사 수치를 국내외의 소아 및 성인 참고치와 비교해 체내의 노출정도를 파악하고, 환경유해물질을 피할 수 있는 생활 수칙 및 검사 추적관찰을 통해 상담이 이뤄진다.

/이세경 기자

유통업계 신제품

대상라이프사이언스 뉴케어 ‘당플랜 안심바’ 선보

대상라이프사이언스(주)는 환자용 식품 브랜드 ‘뉴케어’에서 당 걱정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당플랜 한입영양 안심바’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당플랜 한입영양 안심바’는 설탕 대신 0칼로리 알룰로오스를 사용해 건강한 단맛을 구현했다. 당뇨 환자에게 필수 섭취로 권유되는 식이섬유와 칼슘 함량은 높이고, 당과 나트륨은 대폭 낮춰 균형 잡힌 영양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마치 유과처럼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향으로 맛있으면서 당뇨에 좋은 여주와 돼지감자 추출물까지 담았다.

/신원선 기자

JW중외제약 ‘하이맘밴드 센서티브’ 출시

JW중외제약은 피부 트러블 없는 저자극 반창고 ‘하이맘밴드 센서티브’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하이맘밴드 센서티브’는 일회용 멸균 밴드로, 알러지 반응을 유발하는 아크릴 점착제 대신 실리콘을 적용해 피부 자극을 최소화했다. 또 굴곡진 부위에 붙여도 들뜨지 않으며, 땀이 차지 않고 물이 닿아도 상처를 보호할 수 있는 원단을 사용했다.

앞서 JW중외제약은 실리콘 점착제 제품인 ‘하이맘폼 센서티브’를 선보인 바 있다. 이 제품은 폴리우레탄폼 제제의 습윤 밴드다.

‘하이맘밴드 센서티브’는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이세경 기자